

## 정성들인 대로, 선포한 대로,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이동규(분당교회)

70세에 고향을 등지고 2012년 6월 역사적인 신종족메시아 30일 수련을 받고 430가정 축복 승리 사명을 받고도 내 나뉠대로 판단으로 3만, 36만가정 축복자녀들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나이 70살에 정든 고향땅을 떠나 역으로 애들이 살고 있는 수서와 수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곳이 분당과 광주시 경계선인 꿈에도 생각지 않은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 오폐 땅에 2015년 6월 15일 이사를 했다.

광주교회는 거리가 멀어 가까운 분당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분당교회는 원로목사님들과 축복 2세 식구들로 구성되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식구들이 적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데도 그런대로 섭리에 발맞추어 나가는 어려운 교회다. 내가 사는 오폐 능평리는 광주시와 성남시 경계선에 있어 말씀 사각지대였다. 오폐 땅에 인도하심은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아파트 단지를 매일 새벽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으로 돌며 정성을 들였다.

말 붙일 곳 없는 타향에서 외롭고 힘든 1년이 아무 실적 없이 지나갔다. 축복식에 축복자녀 하나 없이 참석한다는 것이 참부모님께 여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노인정에도 나가봤지만 80대들이 주축이서 정붙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작은 봉사활동을 하며 1년이 지나자 동대표 제안이 들어왔다. 물론 선거를 통해서 되었지만 동대표를 하면서 하나 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오래전에 유명무실한 평화대사 모임을 부활시켰다. CMS 회원 2명 등 첫 모임을 4~5명으로 시작했다. 원로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식구들의 깊은 관심으로 1년 만에 CMS 회원이 16명으로 늘어 매달 3째주 목요일 교회에서 모임을 꼬박꼬박 실시했다. 송종익 목사님이 상임고문으로 적극 주관하고 남상근 권사님이 자연밥상으로 매달 준비해 적은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평화대사님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24~25명으로 숫자는 적지만 알뜰한 평화대사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11월 11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희망전진대회에 버스 한대를 인솔했다. 인연되어진 사람 가운데 3분이 평화대사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네갈의 승리 운세권 가운데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급선회하여 평화 무드가 조성돼 온 국민들을 흥분케 했다. 참부모님께서 전국을 5개 지구로 나누시고 제2지구 경기남부 교구장에 이승일교구장을 보내주셨다. 이승일 교구장이 광주광역시 교구장으로 계실 때 160가정을 1호로 승리한 인연이 있다. 축복 승리 하고 나니 15일 동안에 놀라운 물질축복이 내렸던 은사도 있었다.

경기도 땅은 전라도와는 판이 달랐다.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노인정에도 몇 안 되지만 선뜻 응해 주지 않았다. 우선 정성의 터전을 쌓기로 했다. 1월 1일 전도대상자 21명을 참부모님께 보고 드리고 목사님에게도 보고하고 날마다 명단을 부르며 기도했다. 마을 뒷산(수미산) 중턱 좋은 자리에 내 나뉠의 성

지를 정하고 수시로 산에 올라가 성지 기도를 했다. 소원 성취서에 430가정 승리 기원을 하고 정성을 들인 가운데 특히 진안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영계를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3월 10일 인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포은 정몽주 묘소에 참배와 기도 정성을 들였고 조선전기 문신인 저현 이석형 묘소에 기도를 하였다. 그곳에는 영일정씨 선조, 연안 이씨 선조들이 약 60여기가 있었는데 묘소마다 참배를 하고 절대선영으로 거듭나서 협조해 달라고 기원했다.

다음날은 수미산에 아내 선조가문인 경주김씨의 조선개국 1등 공신인 김균선생 묘소와 30여기 일가 묘소와 인근 김해김씨 10여기 등 주변 묘소마다 참배를 하고 정성을 들였다. 3일째는 울동공원에 청주한씨, 한백봉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 묘소에도 정성을 들였다. 한백봉 독립유공자는 1919년 3월26~28일 3천명을 동원하여 독립만세를 불러 옥고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터전 위에 참어머님 탄생도 연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더욱 연민의 정을 담아 정성을 들였다. 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승일 교구장으로부터 430가정 축복완료 승리 비결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3월 29일 2지구 목회자, 중심식구 신종족메시아 출정식에 참석했다. 그때 이기성 회장님이 간곡하게 전한 ‘실체성신역사시대’ 성령이 충만한 말씀, 황보군 지구장님의 ‘생각한 대로, 꿈꾸는 대로, 선포한 대로, 정성들인 대로, 준비한 대로,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김명대 회장님의 ‘참부모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말씀, 이승일 교구장님의 축복 승리를 위한 구체적 말씀을 경청하고 결심을 굳혔다.

4월 1일 새벽 ‘神種族메시아 430家庭 祝福勝利 祈願!’를 기도실에 커다랗게 써 붙여놓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기도를 했다. 날마다 훈독을 마치고 붓글씨로 ‘神種族메시아 430家庭 祝福勝利 祈願!’를 써 보며 마음에 다짐을 해 나갔다. 4월 9일부터 분당교회 3일 철야정성을 들였다. 첫날에 6가정, 둘째 날 7가정, 총 8가정이 동참하여 초창기 심정을 체휼했다. 첫날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430가정을 먼저 하라고 명하셨다. 앞이 안 보였지만 흔쾌히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 4월 16일 황보군 지구장님 축복식에 평화대사 3분을 축복식에 참여시켰다. 말씀 도중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가 연방 터져나오고 3분 모두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자신감이 생겼다. 선포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루어진다.

4월 19일 분당 평화대사 모임에서 5월 11일 청평에서 430가정 축복식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황보군 제2 지구장님 말씀 따라 선포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21일 노정이었다. 무슨 배짱으로 한명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21일을 남겨놓고 430가정 축복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본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꼭 해야 한다는 6월이면 선거철이라 힘들고 선거 끝나면 더워서, 이러다 시들해지면 포기할 것 같은 절박감이 앞선 것 같다.

지난해 상암 경기장에 참여했던 노인정을 비롯 30여 곳 노인정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5월 1일 곽형진 평화대사가 평화대사들을 저녁식사를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정병순 여성포럼회장이 버스 6대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뜻밖의 소식이었다. 1~2대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가운데 영계에서 영인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통일교 행사에 왜 가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한 사람만 나와도 우르르 안 간다 하고, 다시 목 아프게 취지를 설명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활동에 바쁜 중에도 철쭉 정화제에 참석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8줄기 해원식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체성신시대 참어머님께서 직접주관 하신다는 이기성 회장님 말씀을 듣고 8줄기 해원식을 하고 방계 해원식도 했다.

버스 6대 예약을 해 놓았는데 6일까지 100여명 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 5월 7일 4대가 확보되고 10일 밤까지 신청자가 들어와 버스 6대를 가득 채우고 붐고 한대가 출발하게 되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 영계가 동원되었다. 가인권의 의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일찍이 참부모님께서 찾아 세우신 평화대사들이다. 평화대사들의 협조와 특히 정병순 여성포럼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승리할 수 있었다. 무릎관절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데도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축복활동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인 비용 문제도 믿음의 자녀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이사 3년 만에 보고 40일, 선포 21일 노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 사각지대인 황무지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싹틔우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 그동안 인연되어진 단체장들을 중심삼고 30여명으로 정예부대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분당을 복귀해 나가자고 굳은 의지를 내보이셨다. 그 말씀대로 힘써 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 세네갈과 유럽에서의 승리 운세가 한반도에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부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린다.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보고 싶습니다.